

서울캠 중앙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진행

강린희 기자 linhee0710@khu.ac.kr

충전기·인공눈물 대여 분리수거 쓰레기통도 설치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가 중앙도서관 자치위원회와의 연계 사업으로 중앙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노트북 충전기와 인공눈물 대여,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로 진행됐다.

노트북 충전기와 인공눈물은 평일 9시부터 17시 45분까지 중앙도서관 1층 도서관 자치위원회 사무실에서 대여할 수 있다. 노트북 충전기는 신분증을 맡겨야 수령이 가능하다. 삼성 기존 노트북 충전기 2개, 삼성 c타입 충전기 1개, 엘지 그램 노트북 충전기 3개, 애플 맥북 충전기 1개를 최대 3시간, 당일 오후 17시 45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충전기를 분실하거나 파손되었을 때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노트북 충전기와 인공눈물 대여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열람실 풍경에서 착안됐다. 이번 환경 개선 사업을 기획한 전 중앙도서관 자치위원장(자치위원장) 윤지원(아동가족학 2018)씨는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며 노트북이 주요 학습 도구가 되는걸 보면서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총학 생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트북 대여 사업과 호환성도 좋다”고 설명했다.

김유림(국어국문학 2019) 씨는 “통학을 하는 학생이라면 항상 가방에 무거운 노트북 충전기를 들

고 다녀야 한다”며 “충전기를 집에 두고 와서 학교 근처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빌리거나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에 간 적도 있었는데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 사업도 작지만 꼭 필요했던 사업이다. 중앙도서관에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청소 노동자가 직접 재활용 쓰레기를 걸러내야 했다. 음료가 남은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통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다. 도서관 이용자가 많은 시험 기간에는 쓰레기통이 가득 차 일회용 음료 컵이 열람실 앞에 쌓여있는 경우도 빈번했다.

분리수거 쓰레기통의 설치 위치는 열람실과 화장실 등으로 먹고 남은 음료와 일회용 컵의 분리배출도 용이해졌다. 분리수거 쓰레기통은 중앙도서관 1층 1열람실 앞과 남/여 화장실, 2층 제2열람실 앞, 제3열람실 앞과 남/여 화장실에 배치되어 있다.

서울캠 중앙도서관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만석이었던 4층 사물함 이용자가 코로나 이후 전체의 25%만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이용객 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학우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자치위원회, 학술연구 지원팀이 사업을 구체화했고, 총학 측의 참여로 사업이 가능해졌다. 윤지원 씨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이번 환경 개선 사업을 준비한 끝에 2학기 개강과 더불어 학우분들에게 사업을 선보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도서관 이용자가 많은 시험 기간에는 일회용 음료 컵이 열람실 앞에 쌓여있는 경우도 빈번했다.(사진①) 하지만 새로 설치된 분리수거 쓰레기통으로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사진②) 노트북 충전기 대여사업도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잡을 듯 하다.(사진③) (사진=강린희 기자)

유학생 위한 성찰과표현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hu.ac.kr

출판문화원이 유학생 맞춤형 글쓰기 수업을 위한 ‘외국인을 위한 성찰과 표현’을 출간했다.

‘외국인을 위한 성찰과 표현’은 외국인의 흥미를 반영해 출간됐다. 책은 기존 ‘성찰과 표현’의 글쓰기 능력 함양에 도움을 주며, 외국인이 흥미를 느낄 만한 주제와 예문을 통해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책의 시작에서는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유학생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내려놓기를 당부하고 있다. 유학생들에 대한 격려로 시작한 이 책은 ‘나의 한국 생활’과 같이 유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를 제시한다. 또한 글쓰기에 대한 쉽고 체계적인 설명으로 유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1부 ‘글쓰기 첫걸음’에는 한국어로 글을 쓸 때의 어려운 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의 글쓰기 고민’이라는 장이 있다. 이 장을 읽는 유학생들은 자신의 고민을 직접 써보며 문제점을 직면하게 된다.

‘글쓰기 고민 상담실’은 앞선 유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등 구체적인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제공해 고민 해결을 돕는다.

출판문화원은 “유학생들에게 글쓰기는 한국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가 된다”며 “그들이 글쓰기를 통해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타인을 이해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국제캠 온라인 동아리 박람회 개최

홍지민 기자 jimin4249@khu.ac.kr

국제캠퍼스 중앙동아리연합회(중동연)가 기획한 ‘언택트 동아리 박람회’가 지난 6일 개최됐다.

박람회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6일부터 7일까지는 중동연 SNS에 동아리 홍보자료가 게시됐다. 홍보자료는 동아리별 활동 내용, 신청 조건, 활동 계획 등 재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

으로 구성됐다. 8일부터 9일까지는 zoom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박람회가 진행됐다. 동아리별로 소회의실을 개설했고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15분마다 관심 있는 동아리의 소회의실로 이동했다. 소회의실에서 학생들은 동아리에 대한 소개와 홍보를 들을 수 있었다. 더불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들이 평소 동아리에 관해 궁금했던 점을 질문할 기회가 마련

됐다.

8일 진행된 실시간 박람회에는 고은대, HEXA, CCC, 쿠마, 스왈링, 경희극회, 바람개비, 드레포스, 경희라이온스가 참여했으며 9일에는 BMB, 네비게이트, Kickin Hybrid, 러비스, 설록, 캘리럼프, 가스펠, 소샤이 참여했다.

중동연 비상대책위원회의 박준하(골프산업학 2019) 회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입생과 재학생의

동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몇몇 동아리들은 존폐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며 “침체된 대학 동아리 문화를 다시 살리기 위해 어떤 행사를 기획할까 고민하던 중 언택트 동아리 박람회를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은 “모든 중앙동아리를 대표하는 연합회로서 코로나 종식까지 동아리들의 생명력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대하는 바”라며 “현재 1일 차 누적 접속 수 200명, 1일 차 이벤트 참여 110명 등 기대했던 성과 이상을 거두어 매우 뿌듯하다”고 밝혔다.

박람회에 참여한 연극동아리 ‘경희극회’ 진서희(유전공학 2019)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주로 서면 홍보를 통해 동아리 정보를 얻었던 신입기수들에게 언택트 박람회처럼 더재밋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